

2019 두만강포럼 (图们江论坛 2019) 개최

2019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019 두만강포럼(图们江论坛 2019)이 중국 연변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일대일로와 두만강 구역 신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을 비롯한 두만강 인근 국가와 미국, 일본, 몽골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두만강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영일(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 행정원)

두만강포럼图们江论坛은 두만강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 현실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며,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 법학, 철학, 문학, 문화, 여성 분과별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큰 규모의 국제학술행사이다. 연변대학에서 2008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두만강 구역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부터 법률분과가 독립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처음으로 개최하는 분과회의를 한국법제연구원과 연변대학 아시아연구센터 조선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19 두만강포럼은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연변대학 과학기술도서관 및 과학기술동, 동부교학동 등에서 진행되었고, 9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과학기술도서관 8층 대회의실에서 개막식이 진행되면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개막식이 끝나고 오후부터 각 분과별로 본격적인 학술 행사 일정에 돌입하였다.

법률분과는 “일대일로와 두만강 지역 국가 경제 발전 법률 제도”라는 주제로 과학기술동 8층 제3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노청석卢青锡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법률연구소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윤태순尹太顺 연변대학 법학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환영사, 리수영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의 축사가 이어지며 이번 회의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오동호吴东镛 연변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은 “경제개발법률실무 및 관련 이슈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전홍운田洪鸾 길림대학 교수는 “헤이그의 외국인상사판결의 승인과 집행 협약이 동북아시아 민상사판결 승인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019년 헤이그협약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며 협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리수영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국제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UN 우주의 평화적 이용 5개 조약이 가지는 법적 공백이 우주에서의 군사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평화적 이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역설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정대진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행정소송 도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한계를 설명하며 투자법제 선진화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후 강해순姜海順 연변대학 교수, 김철철金哲中 중국정법대학 교수,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

제2세션은 “노동법률 및 관련 이슈 연구”를 주제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화康贞花 연변대학 교수는 “일대일로로 배경으로 중국 노동법치가 직면한 과제 및 전환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일대일로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대외노동관계의 해결을 위한 국제지역과 쌍무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특구에서의 노동법제 쟁점 분석”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제특구의 특수성과 함께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와 조정이라는 명확한 법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리태일 일본 조선대학교 교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에서 밝혀진 경제분야의 제원칙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경제분야 7개 원칙과 함께 북한의 자력갱생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후 최동일崔東日 연변대학 교수, 심재진 서강대학교 교수, 한창선韓昌善 연변대학 교수가 토론을 맡으며 9월 22일 행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9월 23일 오전에 시작된 제3세션은 “외상 투자 법률문제 연구”라는 주제로 윤태순尹太順 연변대학 법학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만홍金万红 대련해사대학 교수는 “외상투자법의 해석 및 외국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중국의 국내외 자본에 대한 병행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자본관리의 체제 변화를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변용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3국에서의 한중협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과 외상투자법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3국에서의 한중간 협력에 대한 7가지 모델을 예시로 설명하며 9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세 번째 발표자인 이선화李鲜花 연변대학 교수는 “중국 증권법률제도의 변천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장자치, 투자자보호원칙 측면에서의 증권입법과정 및 현재 입법동향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주희朱輝 대련해양대학 교수는 “동해 반폐쇄 구역의 지역 협력에 관한 분석”이라는 주제를 통해 UN해양법협약을 설명하며 동해 공동발전을 위한 연안국 사이의 국제협력, 지역공유 및 조직 구축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표를 끝으로 리해연李海燕 연변대학 교수,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금화金锦花 장춘이공대학 교수, 최룡철崔龍哲 연변대학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분과 학술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전체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폐회식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행사의 성과와 의의를 정리하였고, 내년 포럼을 기억하며 전체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양일에 거쳐 개최된 2019 두만강포럼에서 두만강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접점을 찾고자 많은 전문가의 담론이 모였다는 점과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하는 대외경제협력 및 대외정책에 큰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술행사 공동개최의 큰 의의가 있다.